

## 역사적 외상의 기억과 욕망

이 인 기

엘리엇(T. S. Eliot)은 『황무지』(*The Waste Land*)에서 『율리시스』(*Ulysses*)의 제10장 “떠도는 바위들”(Wandering Rocks)의 상황을 환기하는 듯한 시구를 읊조렸다. 그 시구는 현대인의 삶의 불모성을 형상화하였는데 공교롭게도 더블린 사람들의 삶을 응축한 인상도 준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길러내고  
기억과 욕망을 섞으며  
둔해진 뿌리들을 봄비로 적셔 깨운다. (II. 1-4)

그는 삶이 “기억과 욕망을 섞으며” 불모의 현장 속으로 운전하기 때문에 잔인하다고 규정하였는데, “떠도는 바위들”에 등장하는 더블린 사람들의 삶의 현장도 역시 기억과 욕망이 교차하지만 그 “잔인한” 과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더블린 사람들의 기억은 항상 역사적 외상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 외상을 극복하려는 욕구와 현실의 요구 사이의 격차에서 생기는 욕망 때문에 “봄비로 적셔 깨우듯” 역사가 지속되기는 해도 그 욕망은 계속 좌절당하며 충족되지 못한다.

이러한 “잔인한” 삶의 과정은 “떠도는 바위들”에 등장하는 카셀 보일 오코너 피츠모리스 티스들 파렐(Cashel Boyle O'Connor Tisdall Farrell)의 행적에서 상징적으로 구현되기도 한다. 그가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보기도 하나(U 9.1115-16) 팔투에 외투며 지팡이와 우산을 모조리 걸치고서 항상 “가로등 바깥을 다니”듯이(U 10.299) 더블린 사람들도 저마다 개인적이건 공동체상으로건 역사적 외상을 짊어지고 살면서 길을 찾고자 하나 항상 “가로등 바깥”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즉, 그들은 역사적 외상의 기억을 짊어지고서 그 기억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욕망이 거듭하여 좌절당하는 삶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다. 사실 역사적 외상이란 욕망의 좌절이 반복되며 남긴 기억이라 할 수도 있는데 더블린 사람들은 그 기억과 욕망이 교차하는 현장 속을 살면서도 결국 그 기억을 강화하고마는 역사의 과정 때문에 현실 속에서 환유하는 마비의 굴레에 매여 “둔해지”고 있는 것이다.

본고는 이처럼 역사적 외상의 기억과 그로 인한 욕망이 좌절당하는 삶의 현상으로서 “떠도는 바위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기억과 욕망이 섞인 삶의 과정은 “떠도는 바위들”에 묘사된 더블린의 가정과 종교와 정치의 모든 영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민족의 영웅이었던 파넬(C. S. Parnell)이 죽고 난 뒤 그 세 영역에서는 역사적 외상이 강화되는 현상이 구체적으로 포착되었다: “파넬의 몰락은 아일랜드 사회 내부에 권위의 이중적 위기 현상을 야기시켰다. 부모의 권위가 흔들렸고 또, 어떤 면에서는 더 심각하게 가톨릭 사제의 권위도 흔들렸다”(O'Brien 125). 하지만 이것이 일회적이지 않고 반복되는 현상이라는 사실에 아일랜드 역사의 질곡이 놓여있다. 역사적 외상의 기억은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욕구를 자극하고, 그 욕구는 아버지의 부재를 극복하며 신앙의 진정성을 회복하고 정치적 독립을 염원하는 등의 욕망을 형성하게 되지만, “어쩔 수 없어, 이젠 기꺼이 해야지”(Coactus volui, U 10.1113)라는 파렐의 말이 허망하게 들리는 것처럼, 그 욕망은 결국 좌절당하여 역사적 외상의 기억을 강화하게 되고야마는 “잔인한”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 I. 가정: 아버지의 부재

가정의 영역에서 환기되는 외상성 기억은 아버지의 부재와 관련있다. 오늘 장

레를 치른 디그넘(Dignam) 씨의 아들은 기억 속의 아버지를 불러오며 아버지의 부재를 자신에게 인식시킨다: “아빠를 다시는 못 보게 됐어. 그게 죽음이라는 것이지. 아빠는 죽었어. 아버지가 죽었어”(U 10.1169-70). 이처럼 아버지의 죽음을 몇 번씩 되뇌는 행위는 부재를 기정사실화하여 자신의 기억 속에 각인된 아버지의 형상을 지우려는 잠재의식의 표출일 수 있다.

큰 관이었어. 높다랗고 무거워 보였지. 어찌다? 마지막 날 밤에 아빠는 술에 취해 층계참에 서서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셨어 좀 더 마시러 투니점에 갈 건데 구두 어딴냐고 그런데 아빠는 셔츠 차림에 퐁퐁하고 짹달막해 보였지. 아빠를 다시는 못 보게 됐어. 그게 죽음이라는 것이지. 아빠는 죽었어. 아버지가 죽었어. 나더러 엄마한테 잘하라고 하셨지. 다른 말씀은 알아듣지 못했지만 혀와 이빨로 파서는 그 말을 더 잘 하려고 하셨던 것 같았어. 불쌍한 아빠. 그것이 디그넘 씨, 나의 아버지다. 아버지가 이제 연옥에 계셨으면 한다. 콘로이 신 부께 토요일 밤에 고백 성사를 받았으니까. (U 10.1166-74)

술 취한 아버지의 형상은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기는 했지만 그 때문에 아버지의 부재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의식적 투사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아버지의 주사를 보며 가끔은 아버지를 찾으러 술집을 들러야 했을 디그넘 군의 의식 속에 아버지의 존재는 현실과는 단절된 연옥이라는 공간으로 방출하고 싶은 대상이었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아버지가 뇌일혈로 사망해서 중부성사를 받지 못했으므로 연옥에 가지 못할 것이라는 교리보다(Gifford 283) 그에게는 아버지를 자신으로부터 단절시킬 공간이 가능태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부재는 한편으로 그에게 현실적 요구가 작용하는 시점이 되며 스스로 아버지가 되고자하는 욕망을 부추기기도 한다. 디그넘 군은 도일(Doyle) 부인 모자점의 거울 속에 자신을 비추면서 사실상 상상에 잠긴다(U 10.1130ff). 대결 포즈를 취한 두 명의 권투 선수들과 여배우가 그려진 포스터를 보면서 자신의 몸을 좌우로 돌려가며 거울에 비추어 보는 순간은 그가 남성성의 구현으로서의 자신의 이미지를 상상하고 있는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그에게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현실의 두려움을 남성적인 강력함으로 돌파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한 이미지의 투사는 결국 욕망의 투사로 이어지기 때문이다(Miller 179).

하지만 그가 동일시할 아버지가 물리적으로 부재하며 ‘아버지의 이름’(Lemaire 83)으로만 남아 있는 현실은 다른 한 편으로는 아버지가 되고자하는 욕망의 실현을 방해할 수도 있다. 아버지가 비록 “엄마에게 잘하라”는 말씀으로 기억되기는 해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폭력적 형상으로서 충분히 거세위험을 가할 만한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궁극적인 제거의 표적이 되는데 그 형상으로부터 그 스스로가 동일시할 상징적 질서를 찾을 수 있으리라는 것은 가능한 추론이 아니다. 즉, 스스로 아버지가 되고자하는 욕망은 있으나 그 욕망을 안내할 참조체계가 사라진 현장에서 아동의 욕망은 좌절의 경계선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큰 것이다. 그래서 그가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며 상상하는 동작은 마치 상징계의 고통을 회피하며 상상계로 퇴행하려는 아동의 심리상태를 암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정체는 미지의 시간들에 대해 자기확장으로 대응하려는 상상의 결과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는 돼지고기를 사가지고 가서 오늘 저녁 식탁에 올릴 예정이었는데 이것은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상징이 된다. 그러나 전차가 고장남으로써 그러한 역할에 대해 물리적인 장애가 발생하였고 또한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닳두리하는 부인들이 싫었기 때문에 걸어가고자 결정한 자신의 태도 또한 상징적 질서를 체화하려는 자세가 아니다. 여전히 내외부적으로 장애가 도사리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상징적 질서를 체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것이다. 게다가 더블린에서 “엄마에게 잘하라”는 아버지의 말씀은 허상에 불과한 경우가 더 일반적이라는 현실을 고려할 때, 비록 디그넬 군에게 상징적 질서를 체화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다하더라도 그 욕망은 결국 충족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데달러스(Dedalus) 씨의 딸 부디(Boody)가 아버지를 지칭하며 되뇌, “하늘에 안 계신 우리 아버지”(U 10.291)는 디그넬 씨가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면 사실상 듣게 되었을 법한 이름이기도 하다. 주기도문의 첫 구절[Our Father who art in Heaven]을 불경스럽게 변형한 것이지만 그 이름에는 아버지의 모형에 대한 욕망이 투사되어 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므로 현실 공간으로부터 제거되었어야 할 존재에 대한 원망의 이면에는 하느님처럼 양식을 주고 잘못을 용서하며 시험에 들지 않게 하고 악에서 구해줘서 그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게 되는 존재로서의 아버지상에 대한 회구가 잠재되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데달러스 씨를 보게 되면 이러한 대상에 대한 욕망은 결코 충족되지 못할

것이 자명하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데다 자식들의 생계마저 책임지지 않으려는 아버지의 존재는 자매들에게 제거대상일 따름이지만 그 욕구를 억누를 수밖에 없는 현실의 체계 때문에 잔존하게 된 대상일 것이다. 그 자매들의 모습에는 가족의 생계와 뒤치다꺼리로 젊음을 소진하며 살게 될 또 다른 에블린(Eveline)의 영상이 어릴 뿐이다.

자식과 아버지가 길가에 서서 다투는 상황은 더블린에 체화할 만한 상징적 질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딜리(Dilly)가 아버지로부터 생활비를 더 받아내려고 앙버티고 마침내 아버지가 동전을 더 내놓게 된 상황은 사실 아버지 스스로가 상징적 질서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고 있는 자의식의 결과일 수도 있다.

잠깐 기다려, 테덜러스씨가 으르듯이 말했다. 너도 다른 녀석들과 같애, 그렇지? 네 불쌍한 에미가 돌아간 뒤에 떼거리로 버크장머리 없이 굴었지.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 나한테 한 번 혼쭐이 날 테니. 양아치 짓거리나 하고! 내쫓아버릴 거야. 내가 뺏어도 신경도 안 쓰겠지. 그치가 죽었어. 꾀대가 죽었어[라고나 하겠지]. (U 10.681-85)

아직 “뺏어”버린 상황은 아니지만 아버지의 모습은 상징적 질서로서의 형상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 폭력적인 언동으로 거세할 것을 위협해도 그 아버지는 이제 아무런 권위도 인정받지 못하는 “꾀대”(the man upstairs)일 따름인 것이다.

이처럼 아버지가 상징적 질서로서의 권위를 지니지 못하는 현장에서는 디그넨 군의 상황에서 암시된 대로 아동 스스로가 자신의 아버지가 되려는 욕망 또한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따라서 스스로 자신의 아버지가 되는 이론을 설파하였던 스티븐(Stephen)으로서도 상징적 질서를 체화하려는 욕망을 구현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가 여동생들의 곤경을 보며 돌아가신 어머니와 익사자를 구하지 못한 가책을 느끼는 장면에서는 기억속의 외상을 극복하고 상징적 질서를 체화할 기회를 갖는 듯이 보였으나 오전에 받은 급료를 동생들의 생활비로 주지도 않았거니와 술로 마셔버린 행태에서는 아버지라는 존재가 끼친 외상으로부터 여전히 극복하지 못한 징후를 발견하게 된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아버지가 되려는 욕망을 구현할 계기를 찾지 못하고 그 욕망이 계속해서 미끄러지는 현장에 갇혀 있는 것이다. 즉, 그는 기억 속에 부재한 상징적 질서로서의 아버지가 “나와 내

심장과 내 영혼 둘레를 해초 가닥 같은 기다란 머리카락으로 둘러싸서”(U 10.876-77) 자신의 현존마저 익사시킬 것이라는 두려움에 빠져 있으므로(Peake 210) 욕망을 실현시킬 순간에 위축되는 증세를 반복적으로 보이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한편, 더블린에서는 자신을 아버지로 만들어줄 아들이 없어 아버지가 되지 못하는 상황도 전개되고 있다. 블룸(Bloom)은 아들이 죽고 난 뒤 그 기억의 잔영들을 현실 속에서 발견하면서 아들을 새로 얻고자 하는 욕망을 품는다. 그는 하루 동안 아내나 다른 여성에 대해 욕정을 느끼기도 하는데, 그것은 곧 그가 아들의 결핍에서 생성된 욕구와 10년 5개월 18일간 방치했던 아내와 잠자리를 해야 하는 현실의 요구 사이에서 아버지가 되려는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모색중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는 가판대에서 아내에게 줄 헌책을 사면서 그 책의 한 장면과 현실의 아내를 함께 연상하며 욕정에 휘둘리기도 했는데, 그 상상 속의 현장에 대한 묘사가 자세한 만큼 그 욕망의 강도를 짐작할 만하다.

온기가 그의 몸 위로 부드럽게 쏟아진다, 그의 살이 오그라든다. 형클어진 옷 사이로 살이 드러났다. 눈의 흰자위가 흐릿해지고. 그의 콧구멍은 먹이를 찾아 흥예처럼 솟았다. 연고처럼 녹아내리는 가슴 (그이를 위해! 라오울을 위해!). 양과 같은 거드랑이 땀 냄새. 야고 같은 점액 (숫구치는 그녀의 풍만한 육체!). 느껴 봐! 놀러! 오 이런! 사자 똥 유행 내! (U 10.619-23)

하지만 그 요동치는 상상 속으로 투입한 현실의 요소는 그러한 상상을 중단시키고 만다. 그 중단은 곧 욕망의 좌절을 의미한다. 욕정적 상상을 아들을 갖고자 하는 욕망의 연장으로 볼 때 “사자 똥 유행 내”는 그 욕망을 좌절시키는 현실적 요인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사자 똥 유행 내”는 가판대 주인의 입냄새로서 (Benstock 151-52) 상상으로부터 현실을 급격히 일깨울 정도로 강력한 현실적 요소인 것이다. 물론 그 현실적 요인이 무엇인지는 구체화할 수 없으나 상상속의 성교를 아내와 실제로 수행할 수 없는 자의식과 그런 심리적 부담을 느끼게 하지 않을 마샤(Martha) 혹은 거티(Gerty)와의 관계에서 대리만족을 구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 외상이 그의 욕망을 억압하고 있는 것은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아버지가 되고자 하는 그의 욕망은 상상의 순간에 구현된 대로 현실 속에서 좌절하고 말 것이다.

실제로 그의 욕망은 여러 번에 걸쳐 좌절된다. 우선 아내와 보일란(Boylan)과의 사통이 그가 하루 종일 조바심을 내며 방조했었지만 성과를 얻지 못한다. 그가 아내와 보일란의 관계에 대하여 굳은 심증을 갖고서도 도덕적인 조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아내에 대해 장기간 생산적 노력을 투여해보지 못한 자신에 대한 복합 감정과 그것에 동반하는 아버지가 되고자 하는 욕망 때문일 수 있는데, 아내와 보일란이 사통을 했는지의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아내의 독백 속에 나타난 대로 그녀가 월경중이라는 사실은 결국 아버지가 되고자 한 그의 욕망이 좌절되었음을 알려준다. 그리고 그 나름대로 시도한 일 속에서도 그의 욕망은 좌절되는데, 그는 스티븐에게서 아들의 잔영을 보고 술에 취해 폭행을 당한 그를 위로하며 밤중에 집으로 데려와 잠을 재워주려고 하는 등 상징적으로 아버지의 지위를 취해보지만 스티븐은 한밤중에 그의 집을 떠나버린다. 그 후 그는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결단의 순간을 실행할 기회를 다시 찾는다. 하지만 아내는 지금 월경중이다. 아버지가 되고자 한 그의 욕망은 이렇게 끊임없이 미끄러지며 충족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 II. 종교: 권력과 물질

종교 영역에서 기억과 욕망이 섞이는 현장은 콘미(Conmee) 신부의 의식의 흐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오늘 사제관을 나서며 북동지역의 오브라이언 빈곤아동구호원(O'Brien Institute)으로 가려고 한다. 디그넝 씨의 아들을 그곳의 아테인(Artaine) 학교로 전학시킬 자리가 있는지 알아보려는 것이다. 그 종교적 직무를 수행하러 가는 동안 그는 많은 사람들을 마주하며 인사를 주고받는다.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게 된다.

돈 존 콘미는 걸다가 과거의 시간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는 그곳에서 인자한 인물로 존경받았다. 그는 고백받은 비밀들을 발설하지 않았고 과일송이들로 수놓인 천정 아래 왁스 발린 응접실에서 웃는 얼굴의 귀족들에게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돈 존 콘미는 귀족들인 신부와 신랑의 손들을 맺어주었다. (U 10.174-78)

그런데 기억 속에 각인된 과거의 모습은 사제로서의 직임을 권력가들 곁에서 수행하는 형상이다. 자신은 그 사실을 지각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화자는 그의 권력지향적 속성을 그의 호칭에서부터 암시하고 있다. 사실상 그는 돈(Don)으로 불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또한 화자가 그의 행색을 묘사하면서 “수도원장”(superior)이라는 호칭에 빗대어 관용적인 연어법에도 맞지 않게 “열등한 호주머니”(U 10.2) 등의 표현을 사용한 데서도 드러나듯이 그는 계급의식에 침윤되어 있다. 그가 귀족들 사이에서 존경 받는 것에 익숙해지도록 그들의 삶에 많이 관여한 것도 결국 그러한 속성을 구현하는 행위인 것이다. 그는 쉬히 부인(Mrs. Sheehy)을 만났을 때 의회의원인 그녀의 남편 이름을 호칭까지 모두 붙여서 반복하여 언급하였고(Mr David Sheehy M.P., U 10.17; 26-28) 버나드 본(Bernard Vaughan) 신부의 용모와 말씨에 대해서 불편한 심사를 가졌으나 그가 “좋은 집안 출신”(U 10.38)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 심사를 누그러뜨렸으며 매기니스 부인(Mrs M’Guinness)의 “여왕다운 풍채”(U 10.67) 때문에 그녀가 전당포 여주인이라는 사실을 언급하기를 꺼리기까지 했다.

그리고 그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안조차도 라틴어로 언급하는데 이 또한 그러한 권력지향적 속성의 연장이다. 디그넬의 이름과 성찬 기도문을 연계하고 벨브디어(Belvedere) 백작 부인과 시동생 간의 추문을 라틴어로 언급한 것 등이 비록 당시 사제직의 직임상 습관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가 신앙의 진정성보다는 체제에 복무하며 그 권력을 향유하려는 성향을 지닌 인물임을 드러낸다. 사실 라틴어는 불롬이 장례식을 집전하던 코피(Coffey) 신부에 대해 언급한 의식의 흐름에도 드러나지만 사제들이 일반 신도들로 하여금 자신의 권위를 더 인정하게 만드는 도구이다. “라틴어로 기도하면 자신들이 훨씬 더 중요한 존재라고 느끼게 되지”(U 6.602). 이것은 지식과 권력이 직접적으로 서로를 함축하며 역사 속에서 서로를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작용하는 과정에 대한 주요한 사례이며(Foucault 163) 그만큼 라틴어가 권력지향적 사제에게는 중요한 무기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라틴어는 함축적이어서 박식한 사람들만이 사용하는 언어이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보 소유층의 번역을 통해서만 그 의미의 전달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라틴어는 그 계층의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다. (CW 29)



잠시 후 그는 구걸하는 외다리 수병을 지나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의 물질지향적 속성까지도 노정하게 된다. 그는 전쟁 때 부상당한 병사들과 수병들이 구빈원에서 말년을 곤궁하게 보낼 것에 대해 “잠깐” 생각한 뒤(U 10.12-3) 울시(Wolsey) 추기경의 유언을 떠올렸다: “만일 내가 왕을 섬겨왔듯이 나의 신을 섬겼다면 신은 노년에 나를 버리지 않으시리라”(U 10.14-15). 그는 왕을 섬기기 위해 전상을 입은 병사들의 노년과 자신의 노년은 다를 것이라고 회고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곤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대한 신앙적 연민보다는 자신의 물질적 안위를 더 걱정하는 사제이다. 이 점은 그가 오늘 디그넬 씨의 아들을 위해 길을 나서면서도 그 아이의 이름보다 “쓸모 있는” 커닝엄의 이름을 더 잘 기억하고 있었던 사실에서도 뚜렷이 증명된다.

아테인으로 걸어가기 딱 좋은 때군. 그 아이 이름이 뭐였지? 디그넬. 맞아. “마땅하고(디그넬) 옳은 일입니다.” 수사 스완을 만나야 되는 거지. 커닝엄의 편지. 그래, 가능하면 그 사람에게 고마움을 전해야지. 착하고 실질적인 신도: 선교모금 때 쓸모가 있어. (U 10.3-6)

그의 기준으로는 “쓸모” 없는 디그넬의 일은 “잠깐” 생각할 정도의 사안이므로 디그넬의 이름에서 직업상 관용어구를 연상하는 데서 드러나듯이 직업적 습관에 따랐을 뿐 신앙적 진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반면 선교모금은 자신의 운위를 편리하게 만들어줄 것이므로 착실한 커닝엄의 연민과 열정을 이용하기 위해서라도 감사 표시를 계획적으로 수행해야 할 사안인 것이다.

이 같은 그의 물질지향적 성향은 외다리 수병이 몸을 뒤뚱거리면서 구걸했을 때 은전 한 닢을 갖고 있었음에도 적선하지 않았던 순간에 극명하게 드러난다. 그가 적선하지 않은 이유가 머드 아일랜드(Mud Island) 지역을 걸어서 건너는 것이 싫어서 전차 차비로 남겨놓으려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에서는 그의 신앙적 진정성이 기능불능의 상태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맥스웰 부인(Mrs Maxwell)이 찾아온 것 때문에 사제로서의 의무인 점심식사 전 기도문을 암송하지 않았을 만큼 세속적인 염려를 신앙적 진정성에 앞세울 수 있었던 것이다. 화자는 그의 이러한 물질적 성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그의 여정을 서술하는 중간에 댄스 교수인 매기니(Mr Denis J. Magini)의 화려한 외양 묘사를 삽입하여 병치시켰다(Peake 213).

이상과 같이 콘미 신부의 기억과 그의 행적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그는 심리

적 외상의 징후는 보이지 않으며 사제이지만 세속의 방식과 다르지 않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의 기억 속에 욕망을 구성할 결핍이나 외상 등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가 권력과 물질에 대한 외상을 갖고 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의 의식 속의 지향이 상대적으로 강력한 경우이거나 사제가 속된 영역을 침범하는 것에 대한 자의식적 방어전술의 표출일 수 있다. 결핍이나 외상에 의한 욕구가 현실의 요구와 마주칠 때 그 사이의 격차 때문에 욕망이 발생한다고 하면(Lemaire 164), 그는 종교와는 다른 현실의 요구에 스스로를 동일시하여 욕망을 구성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셈이다. 그의 의식 속의 행적으로 미루어 볼 때 그의 욕망의 목표는 신문에 자주 등장해서 “대단히 크게 성공한 인물”(U 10.25)인 버나드 본 신부일 것이다. 이처럼 사제가 일반 속인들의 결핍과 외상을 수용하고 안내할 상징적 질서로서 기능해야 할 당위를 도외시키고 귀족들과의 연관을 더 흡족한 느낌으로 기억하며 “과일송이들로 수놓인 천정 아래 왁스 발린 응접실에서” 지내는 귀족들에 걸맞은 물질적 소요를 염두에 두고 있으므로 그는 속인들과 다르지 않게 사는 위선적 행태에 대한 외상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상황에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처럼 콘미 신부가 품은 위선적 욕망은 신앙적 진정성에 기반하지 않은 허구적 구성을 지녔으므로 결국 충족되지 못할 것이다. 그는 하느님의 길이 인간의 길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는 있었지만(U 10.172-73) 하느님의 길이 자신의 세속적인 성공에 대한 위선적인 욕망 때문에 가려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 매노니(Octave Mannoni)에 따르면 전적인 신뢰 혹은 참된 신앙(faith)은 상징적 협약을 의미하며 수행을 전제로 하는 반면에 단순한 믿음(belief)은 치환될 가능성이 상존하는 심적 상태라 할 수 있는데(Žižek 109-110) 콘미 신부는 기억과 욕망이 뒤섞이는 의식 속에서 권력지향적이며 물질지향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등 상황에 따라 치환되는 믿음을 지녔을 뿐이다. 그의 신앙적 진정성은 이미 세속의 염려로 오염되었으며 그의 욕망 또한 성경의 가르침과는 달리 하느님과 물질이라는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기려는 역리를 범하고 있다.

그런데 그의 권력지향적이며 물질지향적인 행태는 사실상 일반 사제들의 행위의 축도이기도 하다. 사회의 상징적 질서로서 기능하면서 일반 속인들의 심리적 외상과 결핍을 치유하고 그 질서를 현실화하도록 안내해야 할 사제가 오히려 지탄받는 현실은 아일랜드 역사의 질곡인 셈이다. 그들은 “아일랜드의 실제 주권

을 쥐고서”(CW 173) “무서운 권력자”(PA 158)로 행세하면서도 파넬을 몰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결정적인 시기에 배반 세력으로 낙인찍힐 결정들을 해왔기 때문에(PA 38) 『젊은 예술가의 초상』(*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의 크리스마스 만찬 식탁에서도 성도 대상이 되어 있다. “우리는 신부들에게 시달리는 불행한 종족이지. 예전에도 항상 그랬고 앞으로 종막까지도 항상 그럴 거야”(PA 37). 조이스는 앞서 지적한 대로 사제들의 권력지향적 속성뿐만 아니라 그들의 물질지향적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인구 격감을 두드러져 보이게 하려는 듯 교회와 성당, 수녀원과 수도원, 그리고 신학교들이 길게 줄을 지어 서있다. 그것들은 윈스타운에서 뉴욕까지 항해할 수 있도록 하는 용기와 돈을 가질 수 없었던 사람들의 정신적인 곤핍을 배가시켰다. 아일랜드는 무수한 직무에 짓눌려 있으면서도 이제껏 불가능한 일로 간주되던 일을 해왔다. 즉 신과 재물을 겸하여 섬겼고, 영국에 수탈당하면서도 베드로에게 바칠 헌금을 늘려주었던 것이다. (CW 190)

역사 속의 이러한 행태 때문에 사제들은 그들의 모순된 면모를 노출하며(Peake 211) 사회적 논평의 대상이 되었고(Hart 186) 결국 아일랜드 역사에 있어서 외상적 존재가 되고 말았다.

물론 콘미 신부도 디그넘 군을 위해 적선을 하거나 “인생에서 너무 많은 염려와 너무 많은 근심들을 갖고 있어서 불쌍한 중생들”(U 10.140)에 대해 연민을 느끼고 종교적 교리의 인종적 편견일지언정 유색인종들의 종말에 대해 동정심을 느끼기도 했다(U 10.151-52). 하지만 그러한 종교성이 자신의 편의를 위해 거지에게 동냥하지 않고 관습적인 어구로 상황을 모면하는 행위 혹은 권력과 물질이라는 기표에 의해 쉽사리 치환되어버리고 만다. 그에게 참된 신앙의 상징적 협약은 세속과의 경계에서 진정성을 담보하지 못한 관습적인 믿음으로 변질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가 사제로서 “대단히 크게 성공한” 지표를 신앙의 진정성 속에서 찾지 않는 한 그의 욕망은 기의가 빠져버린 기표처럼 부유하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외는 “권력자들이 나를 부당하게 핍박하였으나 저는 오로지 당신의 말씀만을 경외하였나이다”(시편 119편161절, U 10.205)라는 기도문은 소리로서의 경문에 불과하다. 실제로 그는 인사를 받고 그것을 즐기며 권력과 물질을 갖고자 하는 “주인”이었다(U 1.638). 또한 그가 경쾌한 경구를 좋아하였으며(U

10.121) 신도들을 지칭할 수 있는 ‘양떼들’이라는 말도 프랑스어로 표현했을 때 “적절하고 기분 좋은 말”(U 10.188)로 들었다는 사실에서 그가 기표에 함몰된 인 물임도 알 수 있다. 즉, 그는 말썸(formidavit)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만 흉내 내며 그 소리를 좋아하는 사람인 것이다.

### III. 정치: 영웅 신화

정치의 영역에서 외상성 기억은 더블린 사람들의 생활 속에 편만해 있고 그로 인한 욕망의 양태도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특히, 더블린의 대낮 공기를 울리는 외다리 수병의 노래는 피식민지인으로서 명분 없는 전투에 나가 전상을 당하고 보상받지도 못한 채 생활고 속으로 내던져진 참혹한 현실을 환기시킨다.

영국은 모든 병사들이 이날 자신의 임무를 다하길 기대하나니

....

‘하늘이 우리 편에서 싸운다!

그날은 우리의 날’ 병사는 외친다.

이제 나는 충분히 살았다!

명예를 위해 나의 생명을 던졌고

명예를 위해 나는 마침내 쓰러진다.

조국[영국]과 가정과 아름다움을 위해

조국[영국]과 가정과 아름다움을 위해 (Gifford 265)

위의 “넬슨 조사”(The Death of Nelson)의 행간에 스며있는 대로 부역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과 강요당한 정체성, 그리고 조국과 가정과 아름다움이라는 명분도 얻지 못한 채 명예도 없이 길거리로 내쳐진 처지에 대한 외상성 기억은 이 외다리 수병만의 것이 아닐 것이다. 그의 노래는 사실상 피식민지인으로서 더블린 사람들이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웅얼거리며 내뱉은 후렴구가 그 군가의 의미와는 상관없는 구절의 기표로 치환되어 있는 것 또한 더블린의 현실이다. 그 군가가 역사적 외상을 환기시켰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동냥을 던져 주는 정도 이외의 반향을 울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다. 이제 과거의 기억은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미약한 의욕(velleity)을 자극할 뿐 정치적으로 유의미한 의미작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Hart 183).

그도 그럴 것이 더블린의 심장부에 우뚝 서 있는 압제자의 탑은 오히려 그 높이만큼 영도자의 부재를 환기시키고 영웅 파넬의 잔영이랄 수 있는 그의 형의 모습은 민족주의의 앞길을 예견하는 듯이 초라해 보이는 것이 더블린 정치계의 현실인 것이다. 이는 마치 욕망의 표적인 남근이 우뚝 솟아 있으나 그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된 정상적 관계를 전제한 욕망이 아닐 때 부유하는 기표에 불과한 것(Lemaire 87)과 같은 상황이다. 이처럼 실패한 명분과 생존을 위한 미약한 의욕을 암시할 따름인 외다리 수병의 노래가 더블린 정치계의 현실에 대한 객관적 상관물로 기능하는 상황은 정치계가 시도하는 민족주의적 욕망의 실현에 대해 암울한 전조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외다리 수병의 노래가 현재 잊혀지고 있는 대로 앞으로 도 더블린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억압되고 말 것은 짐작이 가능하다.

네드 램버트(Ned Lambert)의 말은 외다리 수병의 노래가 환기시킨 더블린 정치계의 현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암시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성 마리아 대수도원의 역사적 집회소에 서 있습니다. 비단 문장 토마스가 1534년에 여기서 저항을 선언했었지요. 더블린 전역에서 이곳이 가장 유서 깊은 장소입니다. 오매든 버크가 조만간 이곳에 대해서 무언가를 쓸 것입니다. 합병 때까지 옛날 아일랜드 은행이 저쪽 편 부지에 있었고 유태인들이 아델레이드 가에 회당을 짓기 전에 그들의 사원이 여기 있었지요. (U 10.407-13)

그가 현재 곡물창고로 변해버린 성마리아 대수도원 건물에서 “가장 유서 깊은 장소”를 운위하며 조만간 무언가가 씌어질 것을 언급하는 대목은 더블린 정치계가 저항의 연속적 실패로 인한 외상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그 실패를 “유서 깊은” 과거로 형상화하며 무언가를 써서 상징조작을 하려고 하는 데 머물고 있음을 드러낸다.

그가 서있는 장소는 “비단 문장 토마스”로도 불리던 킬데어(Kildare) 10대 백작 토마스 핏제랄드(Thomas Fitzgerald)가 아일랜드 부총독의 신분으로 1534년 헨리 8세에 대해 반기를 들고 전쟁을 선포하였다가 실패한 곳이다. 권한도 제한적이었던 백작이 지원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저항을 하였으므로 돈키호테적 반발이

상의 의미는 없었고 결국 그는 체포되어 참형을 당하고 말았다(Gifford 59). 이후 이 사건은 아일랜드의 대영투쟁사에 있어서 원형적 위치를 갖게 되는데, 보인(Boyne) 전투, 웨クス포드(Wexford) 항쟁 등의 대사건에서도 반복되었듯이 영국에 대한 저항이 상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하여 결국 참혹한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특히 1800년의 합병 사건은 아일랜드 의회에서 결정한 일이어서 아일랜드인들의 자의식속에 자괴감을 배가시켰다. 더블린 전역에서 “가장 유서 깊은 장소”는 사실 연속된 실패라는 더블린 정치사의 원형적 굴레를 연상시킬 따름이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실패가 반복되는 데에는 실패의 역사를 상징조작으로 호도하려고만 한 민족주의의 오판이 도사리고 있다.

이런! 그가 외쳤다. 그 사람한테 킬데어 백작이 카셀 대성당에 불 지른 뒤의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잊었네. 그 일 알아요? 내가 그래서 정말 미안합니다, 그가 말했지, 하지만 맹세컨대 주교가 안에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좋아하지 않을지도 몰라. 뭐? 이런, 어쨌든 그 사람에게 말할 거야. 그건 위대한 백작. 대 피츠제럴드였지. 제럴드 가문 사람들은 모두 유력한 인사들이었어. (U 10.444-49)

돈키호테식으로 저항한 백작을 “유력한 인사”로 호명하려는 발상은 현실의 요구가 압도적이었음을 암시하고 거기에 저항한 인물의 영웅다운 면모를 부각시킴으로써 그 실패의 책임을 우회하면서 동시에 또 다른 영웅에 대한 신화를 구성할 빌미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영웅 신화의 생산 과정에 자주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은 로버트 에밋(Robert Emmet)이다. “저기 아래서 에밋은 교수당했고 내장이 꺼내진 채 육시를 당했지. 번들거리리는 검은 밧줄. 개들이 길가에서 피를 핥아댔고 총독 부인이 마차를 타고 곁을 지나갔어”(U 10.764-66). 에밋은 1803년 나폴레옹과 연합하여 아일랜드 정청을 점령하려고 시도하다가 나폴레옹이 돕지 못하게 되어 체포당한 인물이다. 그 역시 불가능한 저항을 시도한 또 다른 돈키호테였을 수 있다. 하지만 그가 교수된 뒤 참수되기는 했어도 내장이 꺼내지거나 육시를 당하지는 않았는데(Gifford 274)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참혹한 목격담에서는 그 비참한 최후를 부각시켜 영웅시하려는 의도를 포착해낼 수 있다.

이처럼 돈키호테적 반발의 원형적 굴레에 대해 반성하기보다 오히려 영웅 신화를 만들어 실패의 책임을 호도하려는 시도 자체가 민족주의적 욕망의 좌절을 자인하는 행위이지만 민족주의는 사실상 그 길에 들어서 있다. 외다리 수병의 노래가 공중으로 사라져버렸듯이 저항의 원형적 유적지는 곡물창고의 먼지 속에 묻히고 에밋의 피는 개들이 훔아버렸는데도 그러한 외상을 민족주의적 수사의 공허한 합리화와 과장법에 이용하고만 있는 것은 아일랜드 정치의 질곡이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처럼 “부풀린 허풍”(U 7.315)을 배제하면 제과점에 앉아 장기나 두는 영웅의 잔영만 남게 되는 것이 현실이기는 하다. 그래서 탐 로취포드(Tom Rochford)가 위협을 무릅쓰고 하수구에 빠져서 질식할 지경인 사람을 구해낸 사건에 대해서 “영웅적 행위”라 지칭하며(U 10.503) 파넬의 몰락 이후 영웅의 출현을 사실상 고대하는 욕망을 드러내게 된다. 그러나 역사상 실패한 저항을 회고하면서 영웅 신화를 재생산하려는 작업은 기의가 없는 기표들의 부유에 불과할 것이다. 그 과정은 “가장 유서 깊은 장소”에 산적한 곡물 부대에 먼지가 앉았다 눈과 코를 매캐하게 하고는 비산해버리는 것으로 상징된 바 있다.

한편, 돈을 빌리러 온 오몰로이(O'Molloy)의 사정을 짐작하고 있으면서도 판전을 부리는 램버트는 그가 내뱉는 말들이 돈을 빌려주지 않으려는 의도를 지닌 것이라 하더라도 공교롭게도 곤궁한 더블린 시민에 대한 민족주의자들의 태도를 대변한다. 그의 태도는 곤궁한 시민들의 필요에 적절히 대응하기보다 실패한 영웅들의 전적을 허구로 구성하는 등 공허한 기표들만 양산하는 민족주의자들의 행태와 닮은 것이다. 그들이 거론하는 역사와 영웅은 실패한 과거를 미화하고 현재의 역경을 회피하려는 상징조작의 도구일 뿐이며 결국 구걸하는 수병이나 오몰로이처럼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위(Peake 214)가 먼지처럼 비산하는 공간이 되고 말 것이다. 곡물창고로 사용되는 독립투쟁의 사적지가 상업주의가 역사적 의미를 삭제해버리는 현실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면(Hart 198) 그 만큼 민족주의의 비현실적 상징조작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적은 것이다.

사실 영웅 신화의 생산 과정은 주로 과거의 역사를 소재로 반성이나 재검토 없는 일반화를 시도함으로써 진행된다(Heller 3). 민족주의자들은 이처럼 반성이나 재검토 없는 일반화를 통해서 역사상의 외상을 영원한 상징으로 만들고 그 영원한[무역사적인] 외상과 현실과의 긴장에만 집중함으로써(Žižek 111) 그들의 욕망이 시대를 불문하고 재생산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신화는 과거시제의

신화일 뿐이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몽환 속에서 “미래의 새로운 애란의 새로운 블루무살렘”(U 15.1544-45)을 선포한 블룸의 욕망이 새로운 지표가 될 수 있다. 그의 욕망은 그와 더블린 사람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 난관에 대한 반향으로서 현실 분석과 지향을 함께 드러내기 때문이다.

나는 도시민들의 도덕성을 개혁하고 소박한 십계명을 지지한다. 낡은 것을 대신할 신세계를. 모든 종족, 유대인이나 회교도나 이방인들이 연대할 것.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3 에이커의 땅과 암소 한 마리를. 특별 상여자동차. 모두에게 예외 없는 육체노동. 모든 공원을 밤낮으로 대중에게 개방할 것. 전기 식기세척기들. 결핵, 광기, 전쟁과 구걸은 즉시 없어져야 한다. 일반 사면. 가면을 쓸 수 있는 축제가 매주 열리고, 모두에게 상여금, 국제어인 에스페란토와 국제적 우애. 술집 모주꾼들과 수종 걸린 사기꾼들의 애국심도 이제 그만. 자유 화폐. 무료 대여. 자유로운 사랑. 그리고 자유로운 평민 국가의 자유로운 평민 교회. (U 15.1685-93)

민족주의가 부추기는 영웅의 출현을 배제한 채 평민 혹은 속인들이 만드는 공평하고 공리적인 사회를 구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향해야 할 욕망인 것이다.

하지만 그 길을 가기 위해 우선 현실적으로 총독이 행렬을 준비하고 있는 정치적 상황과 모두 그에게 인사하려고 애쓰는 더블린 사람들의 의식을 극복해야 하는 일이 남아있다. 총독의 행렬을 보고 데덜러스 씨가 인사하고 러브 목사는 경례를 했으며 탐 로취포드는 총독 부인이 자신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자세를 고친 뒤 그녀를 향해 모자를 벗었고 커난(Kernan) 씨는 총독의 마차 행렬을 놓친 것을 유감스러워 했다. 그리고 더블린 제과점의 진열장 창문에서 행렬을 보려고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파넬의 형의 장기판이 어두워졌다. 이러한 현실의 난관을 넘어서 아일랜드 정치가 그 욕망을 충족하기에는 사람들이 행렬에다 경례를 하는 것을 보고 누군지도 모른 채 돼지처럼 묻은 손으로 모자를 들어 올려 경례한 미래 세대의 행위마저도 넘어서야 하는 상황이 암울해 보인다.



## IV. 맺는 말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떠도는 바위들”의 더블린 사람들은 가정과 교회와 정치의 영역에서 기억과 욕망이 섞이는 현장을 살아가면서 욕망의 좌절을 겪고 결국 부유하는 기표처럼 떠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부재라는 외상을 극복하려는 욕망이 “꼰대”로 대변되는 부권부재의 현상과 스스로 아버지가 될 수도 없는 상황 앞에서 좌절하며, 교회에서는 사제들이 신앙의 진정성을 배반하였으므로 스스로 아일랜드의 역사상 외상이 되었고, 정치의 영역에서는 반복되는 돈키호테적 저항의 굴레를 극복하고자 하는 민족주의적 욕망이 근거 없는 영웅 신화로 부풀려져서 결국 더블린 사람들을 향도하지 못하고 총독의 행렬을 우러르게 만든다. 이렇게 기억과 욕망이 서로를 발생하도록 작용하더라도 욕망은 기억에 침윤된 현실 앞에서 계속 미끄러지는 것이 더블린의 현실인 것이다.

이처럼 욕망이 계속 좌절당하면 현실도 동반하여 파편화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이미 “떠도는 바위들”에서 인물들과 그들의 행적이 편린으로만 제시되는 것으로 암시되었다. 그 과정에서 “여망이 성취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인식과 직관은 일치하지 않으며 행위는 기대한 결과를 얻지도 못하고 희망은 미약한 의욕으로 남게 될 뿐이어서”(Hart 183) 사물들도 보이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며 등장인물들의 대부분도 환영과 좌절에 부속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Hart 188). 이렇게 『황무지』의 묘사대로 쓰레기를 움켜쥐고 있는 뿌리마냥 미약한 의욕에 기대어 생존을 이어가는 더블린 사람들은 파편적인 삶의 영상 사이를 불모의 굴레에 매여서 떠돌고 있는 것이다.

움켜 쥐 뿌리는 무엇이며, 이 돌처럼 굳은 쓰레기에서  
무슨 가지가 자라나는가? 인자여,  
그대는 말할 수 없지, 생각조차 못하니, 왜냐면 너는 다만  
수북이 쌓인 부서진 영상들만 알기 때문이야 (II. 19-22)

역사적 외상에 대한 기억과 현실의 요구 사이에서 욕망이 계속 좌절당하며 마치 질병불각증에 걸린 듯 불모의 현장으로만 미끄러져 들어갈 때, 좌절은 그 현장의 부서진 영상들의 파편만큼 환유하게 될 것이다. “꼰대”와 사제와 총독이 지배하는

공간에서 부권과 신앙의 진정성과 독립을 담보하지 못하는 더블린 사람들은 결국 외상의 기억을 안고 욕망의 스러져가는 잔해들이 환유하는 현장을 역사 속에서 다시 확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명지대)

## 인용문헌

- Benstock, Bernard. "The Olfactory Factor." *Joycean Occasions: Essays from the Milwaukee James Joyce Conference*. Ed. Janet Egleson Dunleavy, Melvin J. Friedman and Michael Patrick Gillespie. Newark: University of Delaware Press, 1987. 138-56.
- Eliot, T. S. *The Waste Land and Other Poems*. Ed. Frank Kermode. New York: Penguin Classics, 2003.
- Foucault, Michel. *Language Counter-Memory and Practice: Selected Essays and Interviews*.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80.
- Gifford, Don, and Robert J. Seidman. *Notes for Joyce: An Annotation of James Joyce's Ulysses*. Rev. ed.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8.
- Hart, Clive. "Wandering Rocks." *James Joyce's Ulysses: Critical Essays*. Ed. Clive Hart and David Hayman. Los Angeles: UCLA Press, 1974. 181-216.
- Heller, Agnes. *A Theory of Modernity*. Malden: Blackwell, 1999.
- Joyce, James.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Ed. Chester G. Anderson. New York: Penguin Books, 1977.
- \_\_\_\_\_. *Ulysses*. The Gabler Edition. New York: Vintage Books, 1986.
- \_\_\_\_\_. *The Critical Writings of James Joyce*. Eds. Ellsworth Mason, and Richard Ellmann.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59.
- Lemaire, Anika. *Jacques Lacan*. Trans. David Macey. London: RKP, 1977.
- Miller, Jacques-Alain, ed. *The Seminar of Jacques Lacan*. Book I. Freud's Papers on Technique 1953-1954. Trans. John Fornerster. New York: Norton, 1988.
- O'Brien, Maire, and Conor Cruise O'Brien. *A Concise History of Ireland*. 3rd ed. London: Thames and Hudson, 1985.
- Peake, C. H. *James Joyce: The Citizen and the Artist*.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7.
- Žižek, Slavoj. *On Belief*. London: Routledge, 2001.

## Abstract

### The Memory of Historical Traumas and the Desire in “Wandering Rocks”

Ihnkey Lee

Traumas of Irish history can be identified through the areas of home, church, and politics. Each area represents the traumatic memories such as the absence of father, the failure of priesthood, and the vain reproduction of hero myth respectively. In the Irish home the presence of “the man upstairs” suppresses the desire to overcome the trauma of the absence of father. Priests do not keep faith in sacred life, not living other than secular ones, and they themselves remain a trauma in the Irish mind. In the area of politics nationalist desire for independence tends to deteriorate into “inflated” hero myth. When they recall the traumatic memories, Dubliners get the desire to be satisfied in vain, with the result that the desire always gets frustrated with the demand of reality. It leads to them wandering through the metonymy of frustrated desires with no purpose as Mr. Farrell, the lunatic, does.

■ **Key words** : trauma, desire, memory, the demand of reality, the absence of father, the failure of priesthood, hero myth  
(외상, 욕망, 기억, 현실의 요구, 아버지의 부재, 신앙의 진정성 상실, 영웅 신화)

논문 접수: 2009년 5월 20일

논문 심사: 2009년 6월 5일

게재 확정: 2009년 6월 18일